



2003년
10월 15일
제 62호

춘천성시신문

나침반

교회개신·부흥·복음화운동
교회연합일치운동
새로운 도시 모범시민운동
세계복음화 기도운동

1998년 9월 15일 창간

발행인 임신영

Fax.033)257-1260

Tel.033)256-1260

춘천시 효자1동 373-90 (☎200-0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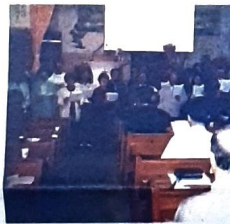
한·일 교회지도자 교류 친선대회 성료

- 22명의 일본인 목사, 신도대표 일행 춘천과 홀리클럽본부 방문 -
- 춘천지역 10개 교회, 대학, 직장방문 및 성시본부 기도모임 참여 -

일본 동경에서 선교사 활동을 하고 있는 조영성 목사는 일본교회의 신앙성장을 위하여 초교파교회 목사 및 신도대표 22명을 인솔하여 춘천지역 교회 목회자들과 친선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춘천의 복음화 성시화운동(Holy Club)을 배우고 귀국 후, 일본지역의 성시화운동을 일으키기 위해 성시운동의 성취가 할 수 있는 춘천의 살아있는 교육환경을 배우려는 목적을 가지고 방문했다. 한일양국 교회 지도자들은 9월 24일 오후 2시 우두강교회에서 개최한 한일 교회지도자 교류 친선대회는 김영민 목사의 사회로 시작해 최정호 목사(갈릴리갈교회)의 대표기도, 조남진 장로(전 성시본부장)의 환영사 및 성시운동 소개가 있었고 김영민 목사의 인도로 지역 목회자와 춘천성시본부 임원, 한국홀리클럽본부, 일본인 목사와 신도대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서울과 춘천, 일본 동경 대표자의 간담이 있었으며 저녁 만찬 후, 10개 교회와 강당교회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서울홀리클럽 상임부회장 전용태 장로(전 대구교장, 현 로고스범무법인 대표)의 간담에 감명받았으며 1972년 가을 평전사 시절, 춘천 초자동에 위치했던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전국 5천여명 대학생들의 모임에서 성시화 운동에 관한 비전을 듣고 가슴속 깊이 간직해오던 1998년 8월 춘천지방경찰청 차장장사로 부임과 동시에 춘천

성시화운동을 일으켰으며 95년 9월 춘천지방경찰청장으로 다시 재출현하여 춘천성시화운동본부를 뿌리내리도록 하였으며 청주, 대전, 서울 등 전국 21개 도시에서 홀리클럽운동을 일으켰다. 18년전 연륜을 받아 예수 믿게 되었고 자신이 전도한 검사들을 집에 초청해 성경공부를 시작했으나 잘 믿어지지 않았다. 죄가 아담 한 사람에게서 들어왔고 예수님 한 사람에게서 벗을 받았다는 말은 믿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성시화 운동이란 거룩한 도시 운동이다. 이는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신복음운동이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의식개혁이 되어야 한다. 시민이 변하여 성인이 되고 가정이 회복되어야 한다. 사회변화가 사라지고 선거가 개혁되어야 한다. 읍주운전 없는 도시, 교통사고 없는 도시, 범죄 없는 도시, 도시가 성시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 땅에 5만여 교회, 1200만 신자

가 있지만 매년 5%씩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성시화를 위해서는 예수님 짧은 교회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전용태 장로의 간담은 모두의 가슴깊이 드거운 성시운동의 불을 지폈다. 일본교회 가지요시라 목사는 춘천 청년들의 동경지역 전도에서 감명을 받았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2주전 전도에서 심장이 약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던 89세 노인이 하루 저녁 한국의 밥 집회에 나온 이후 현재까지 계속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규슈교회는 장년층들만 출석하던 교회였는데 전도한 신도사들과 "사랑리"로 공부를 마치고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영접



직장선교연합 창립13주년 감사예배 및 선교대회

춘천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대표회장 민경옥장로, 총무 유승근 장로)는 오는 10월 26일 주일 오후 7시 평화교회(한글 담임목사) 성전에서 연합회 창립 13주년을 기념하는 감사예배와 선교대회를 개최한다. 춘천의 46개 직장선교회가 연합하여 한자리에 모이는 이번 선교대회에는 회원들과 그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드리고 기쁨과 감

격의 시간을 나누게 된다. 이번 행사에 앞서 10월 20일 월요일 오후 7시 남촌식당(소양1교 건너 우편)에서 각 직장선교회장과 연합회 임원들이 모두 참여해 준비기도모임을 갖고 선교대회의 성공을 기원하고 고전을 나눌 예정이다.

문의: 258-8054 http://cafe-god-people.com.ysk

신성갈리교회 성시화를 위한 찬양집회 성료



주일 저녁 7시 "다시 흥하라"(유기 22장 23절)는 타이틀 아래 찬양집회로 진행한 신성갈리교회(담임목사)는 춘천이 성령 충만한 성시화의 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10월 12일

을 강사로 모시고 찬양집회를 개최했다. 역사와 전통을 가진 교회로서 초교파적인 주요한 사역에는 늘 협력해 온 신성교회와 이번 성시화를 열원하는 마음으로 찬양집회가 다짐을 다짐되어 춘천교단에 거룩한 도시 성시화를 꽃피우기 위한 사역들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 믿는다.

국가조찬기도회 강원도지회 창립

- 오직 기도만이 국가와 민족을 살리는 길이다 -

우리나라 사회가 어지럽고 전쟁후가 계속되는 이때에 오직 기도만이 살길이라는 믿음으로 도내 목회자와 교계지도자들이 한 마음으로 일어섰다. 이들은 10월 6일 오후 5시 춘천베어스타운관광호텔에서 국가조찬기도회 강원도지회를 창립하고 같이 기도하기로 결의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어서 창립총회를 가졌다. 허종구 장로(춘천중앙성결교회) 사회로 예배를 시작했으며 조남진 장로(전 강원일보사장) 대표기도, 국가조찬기도회 임원 특별찬송이 있었으며 기감 동부연합회 김도 권오 목사(춘천중앙성결교회)의 기도회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들(느헤미야 1:1-11)이란 주제에 메시지를 선포되었다. 김영진 중앙회장의 격려사에 이어 춘천기독교연합회장 임신영 목사(동부성결교회)의 축사가 있었으며 준비위원장 허천 장

로의 인사말씀이 있었고 김창수 목사(전 강원도기독교연합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그리고 김주환 목사(춘복을 춘천교회)는 만찬을 위해 기도했으며 다 함께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도내교회 대표 지도자들과 본부 임원 등 다수가 동참했으며 교계 목회자들의 축하 속에서 창립되었다. 이제 시군지회가 창립되고 도내교회 등에서 대동영이 동참한 가운데 국가조찬기도회를 가질 수 있기를 소망했다. 총회에서는 ▲강원지회장에 허천 장로(전 도회회장) ▲상임부회장 이학규 장로(식사감리교회) ▲부회장 허종구 장로(중앙성결교회) 김병기 장로(원주) 장부영 장로(속초) 순숙자 장로(원주) 김병무 장로(동해) 김하나 장로가 임명되었으며 ▲감사 이효상 장로 외에 감사직은 추가 선출하기로 하였다.



"성시주일" 드리는 늘사랑장로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늘사랑교회(정재호 담임목사)는 춘천 성시화를 위한 "성시주일"을 온 교회가 결의하고 10월 5일 오전 11시 첫 번 성시주일을 지켰으며 이날 드려진 헌금전액을 성시화사업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정재호 목사와 성도들은 이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춘천 시민을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모든 시민이 예수 믿고 구원 얻기를 위하여 간구했다. 이번 성시주일에에는 조남진 장로(전 성시본부장, 순복음춘천교회 원로장

로)가 참석해 귀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처럼 늘사랑교회와 같이 춘천을 사랑하는 교회라면 매년 1회 "성시주일"에 기도로 무장하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 들어가 먼저 법을 준수하고 도덕적인 모범을 통해 양보의 미덕을 실천하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도시로 회복하려는 중차대한 사역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늘사랑교회: 춘천시 후평2동 67-11
http://www.everloving.or.kr/

제1회 성시화를 위한 춘천선교대회

"춘천선교대회에 참여하는 모든 목회자들과 선교단체 지도자, 평신도들이 영적인 생명을 회복하며 신앙과 인격이 성숙되어지고 더 깊은 말씀과 기도의 경건생활을 통해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소서."

최근 하나님께서는 춘천에서 지역교회들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선교지원운동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춘천은 작은지역입니다. 그러나 갈릴리와 예루살렘 같은 큰 도시와 함께 세계복음화의 도구로 사용하라는 것처럼 춘천의 모든 목회자들과 선교단체와 평신도 지도자들이 한 소망 안에서 한 마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면 춘천에서부터 선교의 새날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선교에 대한 관심과 헌신이 급속히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춘천지역 교회와 대학성 선교단체와 지역 평신도들을 주축으로, 선교의 새 날을 준비하기 위하여 춘천선교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춘천지역 전체 목회자 및 평신도 지도자와 헌신 대학성들을 대상으로 선교대회를 개최하여 전 도시적 선교운동이 일어나도록 오는 11월 2일 춘천선교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제1회 춘천선교대회 준비위원회 일동 -

[주최] 춘천기독교연합회
[주관] CCF(춘천교회포럼) 성시화운동본부, 춘천선교대회 준비위원회
[총무] 홀리클럽(Holy Club), 춘천직장선교연합회, 강원대기독교유원회, 학생선교단체 연합, CCC, HYF, YWAM, JDM, GMP, NTM, HOPE, GP, 일리언교회
[후원] 선교한국 조직위원회

문의: 늘사랑장로교회 정재호 목사 H.P. 016-9722-8150

기간: 11월 2일 ~ 11월 5일(4일간) 저녁7시 / 오전10시 / 오후 5시
저녁7시/ 오전 10시 장소: 춘천동부성결교회(임신영 담임목사)
오후 5시 장소: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순회

◆ 프로그램 ◆

오전 10시~목회자, 사모, MP출신 성도 세미나 / 오후 5시~3개대학 순회 집회 / 저녁 7시~일반성도 저녁집회

일시	11월 2일 주일 저녁	11월 3일 월요일	11월 4일 화요일	11월 5일 수요일	장소
오전 10-12:30	목회자 지도자 세미나①	목회자 지도자 세미나②	목회자 지도자 세미나③		동부성결교회
강사	도문강 GMP대표	조영호 목사	한철호 간사		
오후 5시-7시	청년, 대학생 직장선교회 집회①	청년, 대학생 직장선교회 집회②	청년, 대학생 직장선교회 집회③		강원대, 한림대 춘천교대 하루씩 순회
저녁 7시-10시	청년 일반성도 선교대회①	청년 일반성도 선교대회②	청년 일반성도 선교대회③	청년 일반성도 선교대회④	동부성결교회
강사	이동휘 목사	이동휘 목사	이동휘 목사	이동휘 목사	

사설

성수주일하는 신앙을 가져라

주5일 근무제조정은 주일예배의 기반을 흔들려 흔들고 있다. 교회는 변화된 환경을 앞두고 대대적으로 고신하고 있는데 바깥가나 계곡 등 유령관람지에 새롭게 지 교회회를 세우고 본교회를 떠나서 예배드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계획이 있는가 하면 기존부터 관공제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면 된다는 모두가 하나라는 열린 믿음을 가진 교회들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주5일 근무제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성수주일 예배에 관한 크리스찬들의 신앙심이 인본주의적인 사고에 강박됨에 따라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싶다. 주일예배에 대한 믿음은 변하지 않는다. 주일예배와 예외 여부에 있던지 예배드릴 수 있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 오직 주님의 뜻을 아는 경직과 진실이다. 신앙은 자신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신앙심을 지닌다면 주5일제가 아니라 삶의 환경에 어떠한 변화가 찾아올지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 실패를 통한 성공과 성공을 통한 실패는 크리스찬들에게 교훈을 준다. 주5일 근무제 실시에서 오는 당면한 문제들은 위기임에 확실하지만 교회를 새롭게 개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예배에 관한 항상성만은 지켜나가야 한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어떠한 위기도 문제되지 않는다.

선교한국에 동참하는 신자이길 바란다

우리나라와 세계 미전도 2천여 종족을 대상으로 하는 전도열풍이 춘천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 움직이는 교회와 신앙인이 많이 존재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1972년 황무지나 다름없던 춘천에서 시작된 '성서화 운동'이 작은 도시를 뛰어넘어 이제는 세계를 향한 선교전진기지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희망을 주고 있다. 30년전 춘천에 뿌려진 성서화의 작은 불씨는 서서히 자라는 것처럼 신앙인들의 마음밭에서 성장해왔고 그런 성서화의 바탕 위에서 성장한 젊은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이 국내외의 활동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다. 이들은 30년전의 춘천성서화운동을 떠올리면서 3년간 세계선교를 향한 전략을 연미했으며 세계선교에 전략과 무기를 제공하고 이바지해 온 선교한국직위위원회와 손을 맞잡고 일었다. 믿음의 열정아래 하나로 뭉칠 때 그 힘은 가뭄만만한 것이 되어 큰 결실을 이룰 것이다. 한국교회는 개교회주의적 사고가 만연되어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오직 우리 교회라는 사고로 내교회 제일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 까닭에 선교에는 방관하게 되고 초교파적인 사역을 비난하고 협동은 모순을 보기도 한다. 정기적으로 개최해 온 춘천성서화를 위한 부흥회 등의 계획이

이번에는 춘천선교대회를 통한 세계선교로 변질되었다. 춘천선교대회의 성공을 위하여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단상단 조간기도회를 드리고 있으며 필요한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만민을 기쁘게 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희망에 찬 기대를 걸어본다. 매년 국내선교 유망자들을 건학하면서 선교를 향한 열기를 증진하고 세계미전도지역을 방문하여 선교현황을 받은 등 적극적으로 전도의 열기를 확산시키 나가고 있다. 이제 춘천지역은 도시성서화에만 머물지 않고 미전도종족들의 다른 문화와 다른 언어의 벽을 넘어 세계 성서화, 복음화를 위하여 한 걸음의 전진하기 시작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령에 순종하려는 충실한 일꾼인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존재하는 한 작은도시 춘천은 멈추지 않고 변화할 것이다. 이제는 자랑스러운 세계선교 전진기지로써 새로운 옷을 갈아입고 달려감에 될 것이다.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한다면 이때까지 받아 온 많은 복을 넓은 곳을 바라볼 줄 아는 시야를 회복하여 세계 곳곳의 황무지에 나눌 줄 아는 마음가짐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교과를 초월하여 신앙심을 지닌 이들이라면 선교한국에 각자의 역량껏 참여하기를 바란다.

선교회 소식 · 교계 소식

■ **홍천군 신우회 정오기도회(대표회장 이상순장로)**는 지난 9월 4일 정오 연애클을 식점으로 홍천군교회연합회 총무 박원재 목사(서면전교회 사무)를 초청, '밥상에 노래하게 하신'은 하나님이란 주제로 설교와 찬양을 진행했으며 10월 9일 정오에는 홍천읍 처마대부지에서 이상순 회장의 '처음보다 좋은 마지막'이란 주제의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고 직장복음화와 초교파적 교회연합을 위한 합심기도회를 개최하고 애환을 함께 나누며 오는 11월 1일 토요일 홍천군신우회 하반기 행사로 신우회원 가족동반 수타사, 공작산 등반대회를 갖기로 협의했다.

■ **홍천읍교회협의회**는 10월 13일(월)~15일(수)까지 홍천소망감리교회에서 '청소년 복음전도를 위하여'라는 타이틀로 홍천읍교회협의회 연합부흥성회를 개최하였다. 강사로 이원호 목사(춘천소망성결교회)가 참석해 부흥회를 인도했다.

■ **감리교 춘천서지부 연합**은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춘천중앙감리교회에서 인천 계산중앙감리교회 최세용 감독을 강사로 초청하여 춘천 서지부 29개 교회 4,830명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여하는 연합 부흥성회를 성료했다.

■ **춘천중앙감리교회(사공정 담임목사)**는 10월 10일 오후 7시 30분부터 12일 오후 2시까지 미국 뉴욕 효신교회에 시무하는 방지락 목사(미국한인기독교총연합회장을 강사로 초청해 2003년 특별부흥성회회를 개최했다.

■ **춘천소망성결교회(이원호 담임목사)**는 10월 12일 주일 저녁 7시 30분 '계사마네의 밤' 예배에서 여의도순복음교회 안문숙 집사를 강사로 초청, 간증을 듣고 은혜받는 시간을 가졌다.

■ **춘천제일장로교회(박상호 담임목사)** 40일 특별세례기도회가 10월 8일(수)~11월 16일 주일까지 오전 5시 유초등부실 1층에서 열렸다.

11월부터 활동할 새로운 필진을 소개합니다

- **[사설] 최상호 목사**
사단선교회 사무, 서울신대학, 예수학연구원, 본지편집위원
- **[성경적세례] 최영호 목사**
갈릴라감리교회 사무, MP 코디네이터, 본지편집위원
- **[핵심신앙의만남] 변석규 목사**
신림장로교회 사무, 미국 유니언신대원(미리치먼드), 본지편집위원
- **[평신도신앙] 장준호 장로**
서부감리교회, 협성신대학학 조, 본지운영위원
- **[신앙생활] 이명규 장로**
석사감리교회, 동부연회평신도연합회 총무, 전 직장선교연합회장, 본지운영위원
- **[나과신앙] 박동현 권사**
중앙감리교회, 강원도연합회장, 본지운영위원
- **[신림과신앙] 김영평 안수집사**
동신장로교회, 전 강원도신림평화관, 전 춘천직장선교연합회장, 본지운영위원

책과 신앙의 만남

행복의 윤리학

고범서, 도서출판소화

변석규 목사 (춘천신림장로교회)

저자는 본서를 통해서 삶의 존재론적 의미를 발견하고 실현함으로써 참된 행복의 가치를 추구하고 누리길 원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원론(entelechy)에

의해 모든 생물적 객체는 원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 속에 숨은 놀라운 힘의 가능성(dynamis)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마치 다이나미스의 존재 이유가 자신 속에 존재한 숨은 파력이 현실로 드러나게 하는데 있는 것처럼, 인간의 삶의 목적 또한 인간 스스로 간직하고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현실이라는 무대 위에서 실현하는 것이며, 그 과정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행복이라고 한다. 저자는 행복이 '물질이나 권력 또는 명예에 같은 것을 소유하고 즐기는데 있다'기보다는 인간의 본질적 존재구조에 일치하는 삶의 원형의 위에서 그 잠재적 가능성을 생산적으로 발휘하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줄여지는 선물이다'고 말한다. 하지만 인간의 잠재적 가능성을 실현하는 과정 속에는 끊임없는 방해와 위험 그리고 저항이 있게 마련인데, 이러한 장애물들을 극복함으로써 행복의 가치는 더욱 극대화된다고 한다. 저자는 또한 인간은 자기의 존재를 대상화하고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탐구하고 추구할 수 있는 주체적 존재일 뿐 아니라 타인, 가정, 사회, 자연 및 우주와의 관계 속에서 또 다양한 자아실현을 해야 하는 사회적 존재임을 강조한다. 본서를 읽으면서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사라질 위기에 놓인 기독교가페

청년 복음화의 실질인 공간을 명사로 보존해야

"홀리캘러리"

춘천의 변화가 중앙로 명동에 위치한 '홀리캘러리'는 박성도 집사가 운영하고 있는 기독교 카페이다. 홀리캘러리는 크리스찬 청년들과 대학생들이 음악교류를 통해 친교하는 공간으로, 젊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아늑한 분위기에서 대화하는 공간으로 사랑받아 왔다. 또한 무식하고 차한 마시기 위해 찾은 시민들이 어떠한 거부감도 느끼고 기독교교회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으로 각목을 집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가치를 지닌 카페라고 자랑할 만하다. 그러나 이때까지 오직 믿음과 굳은 신념만으로 홀로 꿋꿋하게 모진 시련들을 잘 견뎌낸 젊은 일꾼 박성도 사장에게도 연이은 위기가 찾아왔고, 춘천의 수백개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간절한 기도와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도움이 절실한 때이다. 대체로 카페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 기독교인들이 거의 찾아주지 않았고, 대안자가 젊은층으로 국한되다 보니 어린 학생들의 주머니 사장을 고려해 모든 차와 음료가 3천5백원 선을 넘지 않도록, 어느 카페에 비해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고 청소년에게 해로운 것은 아예 판매하지도 않았다. 자연히 재정상태는 악화되었고 건물 임대료 등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상황이 되었다. 청년들과 대학생도 머지않아 어른이 되듯이 세대가 수레바퀴처럼 돌아간다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다음에, 그 다음에 대의 청년들도 퇴계와 향락의 한가운데서 빛을 발하며 존재하는 '홀리캘러리'라는 공간에서 크리스찬으로서 꿈과 용기를 얻고 교파를 초월해 교

류하고 음악을 통해 신앙을 기우며 건강한 크리스찬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린 청소년들의 모임 holidays에서는 찾감을 인상하고 특별헌금을 해서라도 카페가 유지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3백여 교회와 수많은 기독교인들 모두가 외면하는 동안 홀리캘러리의 존재가 쓸쓸하게 사라지고 만다면 청년 기독교문화의 양육기가 시작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홀리캘러리 중앙로 1가 74번지 ☎254-4529

「[엘리엘리 라마 사바디나]」칼럼부터 1998년 3월 9일 하나님께서는 홀리캘러리를 춘천에 창조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홀리캘러리를 세상 속의 교회로 이끄셨고 오늘날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운영의 어려움은 늘기도 재촉되었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자 홀리캘러리는 늘 나눔을 출라했습니다. 그 동안 '발인'금품권의 채우는 오천 오백만원이 되었고 더 이상 변제를 미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홀리캘러리 자리를 양도하고 그 돈으로 빚을 갚은 후 홀리캘러리의 재산을 하나님께 기도 할 수 밖에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순교자의 믿음으로 구하여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작은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 8:28) 홀리캘러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음으로 승화된 후 영원한 부활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10월 14일 홀리캘러리 안수집사 올림 (holylee@hanmail.net)

허락하여 주신 믿음의 가능태가 존재할 것인데, 유행을 좇아 급급해 하고, 자신을 개발하기 보다는 남을 흉내내려 하고, 자신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서 사회적 존재의 책임성을 도외시하는 존재는 아니었는가? 반문하여 본다. 한 톨의 도둑이 갈나무로 성장하기 위해 많은 노력의 고비를 넘겨야 하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믿음의 갈 나무나무 역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은혜와 '존재'의 용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리라. 믿음의 씨앗인 가능태가 참 나무가 되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각자 안에 숨어 잠자고 있는 거인을 흔들어 깨우자!

성서화를 위해 후원하신 분들

【언제나 변함없는 기도와 물질로 아낌없이 후원하시는 교회와 기독교인 사역,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이렇게 묵묵한 믿음으로 후원해 주시는 순경들을 성령으로 움직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 〈개인〉 강성수 공영선 김철수 김기태 김기환 김영명 김현철 김원호 민병택 명영복 박동환 박성운 생기문 안미애 안정숙 엄영남 오홍수 이순환 이병연 이준배 이학규 임근철 왕순옥 유근창 한희원 한순주 허순영 홍순복 홍순복 황병환 장기영 정관복 조남진 조준환 최정용 최상호 최치광
- 〈교회〉 순복음춘천교회(김주환목사) / 춘천중앙감리교회(사공정목사) / 춘천석사감리교회(임태창목사) / 춘천중앙감리교회(권오서목사) / 춘천소망성결교회(이원호목사) / 춘천평화감리교회(한 군목사) / 춘천동부장로교회(임신영목사) / 춘천연합교회(신성근목사) / 춘천사상성결교회(최상도목사) / 춘천농사장로교회(정재호목사) / 춘천원신장로교회(이은주목사) / 순복음하나교회(김길홍목사) / 석사순복음교회(김재형목사) / 서부감리교회(박영준목사)
- 〈단체〉 이슬몬테레시오교회(최주리장, 순복음하나교회) / 이용규(영광한의원) / 조은호/김경희(메트로병원선교대) / 이관호/유영순(알로에아임) / 윤기원(이대성경고교수발굴비백) / 강원도청정교회 / 〈특별후원〉 중앙장로교회 성서화위원장(인인원, 이현숙 외) / 이영일(석사감리교회) / 최계천(주조미선교) / JDM에수제자운동(대표 윤내목사)
- 〈후원계좌〉 주흥 711-04-123620 (예금주: 조충환) / 남흥 203-02-280238 (예금주: 조남진)

유퍼스트(주) 봄내지사

금년 1월 공직에서 퇴임하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였습니다. 춘천에서 보람있는 유퍼스트 봄내지사를 열었기에 함께 일할 동역자를 환영합니다. "최고 경영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 자동차 보험 (메인용/업무용/영업용) · 화재보험 · 상해보통 등

지사장 김 영 전(전 도산림정책관)

TEL 253-5771 / H.P. 011-9932-5775 / FAX 253-5772
춘천시 후평2동 678-22 B/D 2F(노동부 춘천사무소에서 300m)

춘천 성시신문을 활용하십시오

교회와 선교회, 기독교관련 모임 또는 개인의 계획에정인 행사, 행사결과(사진), 설교문, 수필, 강증, 소속단체 소개, 추천도서 소개, 성서, 그림 등 원하시는 내용을 성시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분은 매월 11일까지 A4용지 1매 내보내(발행) 많은 경우 연재됩니다)의 원고를 다음중 편리한 방법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열린 마음'으로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 팩스: 257-1260 / E-mail: choocelot@hanmail.net / holyoc@hosanna.net
- 우편발송: 200-091 춘천시 효자1동 373-90번지 내 성시신문

Manna

중요로운 웃음

영국의 사상가 카탈리엔(1795-1881)이 하이더공원을 거닐 때였다. 당시 그는 한 조리의 먹물 행도 없는 가난한 처지였고 매우 궁색한 지경이었다. 그는 공원 벤치에 앉아 오가는 사람들의 화려한 복장과 사치스런 장식을 바라보면서 혼자말로 중얼거렸다. "나는 지금 당신네들 중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고, 그 누구도 갖지 못한 것들을 갖고 있고." 이렇게 말하면서 빙그레 웃는 미소를 지었다. 후일 그는 자신이

지은 책 서문에서 그 웃음의 의미를 이렇게 해명하고 있다. "나는 그토록 색한 가난속에서도 고뇌하던 사실이 있기에 무척 부자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풍요로웠습니다. 그 기쁜 시절은 언제까지나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왕관'을 소유해야 한다."



(J.Parker / 발행 sammoor(런지))

Mission Perspectives(MP)

문화적관점 (10과, 11과)

우리는 지금까지 선교에 대한 관점들을 나누어 왔고 있다. 그중 성경적 관점과 역사적 관점들을 나누었다. 이제 두 가지 관점이 남아 있다. 이번 호에서는 문화적 관점을 다음 호에서는 전략적 관점을 다룰 것이다.

『제10과 그들은 어떻게 들을 것인가』는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듣는가에 대한 이야기이다. 복음이 한 문화 안에서는 강력하게 전파되지만 문화의 장벽들을 쉽게 뛰어 넘지 못하는 이유는 문화가 복잡하고 다단하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복음들 그들의 언어와 문화로 전해야 하는데,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본과와 주제가 된다. 그리고 본과에서는 문화나 도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한 문화 내에서 깊은 차원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특별한 방식으로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 하나님이 제공하신 단서들을 살펴보는 것이 왜 중요한지 대해 공부하게 된다. 선교사는 두 가지를 다루게 된다. 하나는 전달의 내용 즉 복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전달하려는 사람이다. 복음을 전달하는 일 즉 진리를 전달하는 일에 있어서 전공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문화적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이해와 함께 전달 할 대상의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특히 한국 선교사들은 많은 장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지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가 문화에 대한 몰이해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적인 훈련은 선교사의 과제라고 생각된다. 본사에서 좀 허버트는 문화를 다룬다. 그리고 선교사는 복음을 그들과 문화적 맥락에 맞게 제시해야 한다. 이것을 "상황화"라고 한다. 선교사가 그

들의 문화에 맞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문화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한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구속적 유사"이다. 선교사가 그들의 문화에 맞게 복음을 상황화해서 전해야 하지만 그러나 유의해야 할 점은 선교사가 복음을 상황화하더라도 그들의 문화에 복음과 어긋나는 것이 없어야 이것을 선교사가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상황화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혼합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이러한 복음 전달에 모범을 보여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힘으로, 즉 성육신하셨지만 자신이 하나님임을 잊지 않으셨고, 우리의 명백한 죄의 회개를 요청하셨기 때문이다.

『제11과 사리의 다리가 되어』는 문화적 차이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복음이 자리 매김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룬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교적 모델로서 그의 "성육신"과 함께 "포기"와 "동일화"가 있다.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효과적으로 선교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성육신 모델을 통해 배워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겸손의 원리를 찾을 수 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함을 포기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자기 포기하고 자기 희생이다. 그러나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성심껏 우리와 같이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가 선교를 감당하는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깨닫게 된다. 그러면 선교사가 선교지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가능한가? 도널드 라슨은 선교사와 지역 사회 구

성의 문화에 맞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문화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한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구속적 유사"이다. 선교사가 그들의 문화에 맞게 복음을 상황화해서 전해야 하지만 그러나 유의해야 할 점은 선교사가 복음을 상황화하더라도 그들의 문화에 복음과 어긋나는 것이 없어야 이것을 선교사가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상황화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혼합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이러한 복음 전달에 모범을 보여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힘으로, 즉 성육신하셨지만 자신이 하나님임을 잊지 않으셨고, 우리의 명백한 죄의 회개를 요청하셨기 때문이다.

『제11과 사리의 다리가 되어』는 문화적 차이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복음이 자리 매김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룬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교적 모델로서 그의 "성육신"과 함께 "포기"와 "동일화"가 있다.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효과적으로 선교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성육신 모델을 통해 배워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겸손의 원리를 찾을 수 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함을 포기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자기 포기하고 자기 희생이다. 그러나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성심껏 우리와 같이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가 선교를 감당하는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깨닫게 된다. 그러면 선교사가 선교지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가능한가? 도널드 라슨은 선교사와 지역 사회 구

최영조 목사
MP코디네이터
(감리회감리교회)



성원들 간의 간격은 선교사들이 적절한 역할을 맡는다는 여부에 따라 넓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다고 말한다. 라슨은 선교사들이 '실행 가능한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실행가능하다는 말은 '성공할 수 있는 혹은 계속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이라는 의미이다. 타문화권에서 선교사들의 행동을 해석하는데 세 가지 배경이 있는데, 그것은 학교, 시장, 법정이다. 선교사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학교, 시장, 법정 모델을 부파하는가를 이해하고, 선교지에서 스스로를 어떤 사람으로 제시할지에 대해 신경을 쓴다면, 그들은 배우는 자, 성인, 이자기론으로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선교사들이 이런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효과적으로 선교사들은 어떤 문화에 들어가 자신의 요구들을 듣거나, 받아들이거나, 존중하거나 주장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래서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는 데 동일화 과정을 밟기 위해서 처음에는 언어 습득을 위해 배우는 사람으로, 그래서 나의 몇 가지 경험을 소개하는 상인의 역할로, 다음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아주 간단한 이야기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꾼으로 발전해 갈 수 있다. 그러나 선교사가 동일화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 문화 속의 다리'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을 표현하고자하는 사람이 문화라는 장벽을 넘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선교 사역의 핵심은 사랑의 다리를 놓는 것이다.

교회축구연합회 창립·연합회장배 대회

- 회장 신종철장로 부회장 김영관장로 사무장 정학수집사 -

충청지역 교회간의 친교를 통한 연합 활동으로 추진성시화를 앞당기기 위한 충청신 교회축구연합회가 지난 10월 3일 춘천기독교고등학교와 강원도청교회에서 12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1부는 창립예배로 2부는 축구경기로 하루나하의 은혜가운데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 물론 몇 년 전부터 지교회별로 축구팀을 구성하여 꾸준히 활동해 오다가 조직을 갖추어 한자리에 모여 연합활동을 시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회 축구에 관심있는 목사님과 지역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두각진 창립예배에서는 앞으로 주 5일제 근무가 확대됨에 따른 교회 문화를 새롭게 창조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교회대항 축구대회는 단순한 운동과 친교를 떠나서 교회 연합활동을 통한 추진성시화를 이루려는 의지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각 교회 집사님과 청장년들로 구성된 선수들의 뜨거운 관심이 그렇고 또한 많은 교회가 이 행사에 동참한 사실이 충청신 교회축구연합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여성중심화 되어있는 현대교회에서 자칫 뒷전으로 밀리기 쉬운 남성들도 하려금 교회에 주체가 되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계몽에 의한 지켜드리는 생활만이 아닌 하나님 말씀의 태두리 안에서 즐기며 살아드리는 인생 본연의 목적을 이루어 축구를 통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방식이 교회 축구인 것이다. 처음이다 보니 미흡한 면이 잔존이 남을 것으로 보아 앞으로는 차차 고쳐가나 하나같이 원하시는 아주 훌륭한 연합 단체로 발돋움해 나갈 것을 의심치 않는다. 우리는

발목만 만만 일은 수 많은 경기 가운데 한건의 사고 없이 마칠 수 있었고 그리고 우승을 떠나서 쓰러진 상태 선수들 일으켜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모습은 교회 축구에서만 볼 수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들이다. 원년 대회 우승은 비록 소양성교회로 준우승은 소양성교회 일일성교회와 화합상은 신성강리교회로 돌아갔지만 참여한 많은 교회가 하나하나의 큰 상을 받기에 충분했다. 운동장 질서며 환경정리, 경기중 예의, 상대팀을 배려하는 친절, 심판관에게 절대 복종하는 기독정신. 이 모두가 훌륭했다. 그러기에 초청한 춘천신 교회축구연합회 심판위원들의 헌신같은 정성이 끊이지 않았다. 이것이 현상에서 살아있는 선교인이라고 믿고 싶다. 교회축구에 참여한 하나님의 일 선교인 것이다. 단지 스포츠를 통해 즐기려는 하나님의 일 아니다.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춘천신 교회축구연합회 활동은 상하가 번 2회를 거쳐 춘천시 성시와 운동본부장배와 CBS 춘천방송국장배를 개최하고 있다. 처음대회와 화려하지 못했지만 대회를 거듭하면서 많은 교회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리라 예상되며 이에 따른 선교 비전과 연계하여 진정한 추진성시화를 앞장서는 그런 단체로 자리매김 해 나갈 것이며 여기에 많은 교회의 동참을 호소하는 바이다. 시편기자는 얘기한다. "형제여 연합하여 동거하여 아찌 그리 신하고 아를 다스려" (시편 133편 1절) 이제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형제가 동거하는 일은 우리 충청신 교회축구연합회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아멘. (사무장 정학수 집사)



열 사진은 MP 3기 수료생들이 선교현장학교에서 태국 산지족인 뿌리이족의 주거현황을 살펴보고, 그들의 음식을 함께 경험하고 있는 모습이다.

기도전략(Prayer Strategy)을 위한 부흥집회

[일 시] 10월 22일(수) / 23일(목) 저녁 7시
* 목회자세미나는 23일(목) 오전 10시
[장 소] 나눔성결교회(남종호 담임목사)
[강 사] 롯 언네스 목사
[주 관] CCF(충천교회포럼)

CCF(충천교회포럼)은 10월 22일(수)부터 23일(목) 저녁 7시 나눔성결교회(남종호 담임목사) 성전에서 롯 언네스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기도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롯 언네스 목사는 여성목사로써 현재 미국에서 기도예 관련해서 '아메스의 기도' 저자인 부르스 윌킨스 목사와 함께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인물로 1965년 하나님을 만난 후 5년이 지나도록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을 얻지 못하다가 주님의 교제속에서 성경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전략적 기도를 배운 후 25년동안 경이적인 기도의 응답의 삶을 체험했다.

현재 영적기도(하루를 여는 기도)를 전파하는 사역자로 미국, 러시아 등 유렵, 아프리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 일본, 한국 등 전 세계로부터 초대받아 많은 교회와 단체에서 세미나를 통해 기도전략(Prayer Strategy)을 가르치고 있다. CCF는 성도들에게 영적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새로운 성경적 부흥의 역사가 가정과 교회, 민족위에 일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전략 세미나를 개설한다.

한·일 합동으로 드린 성시화 목표기도회

충천성시화운동본부 기도모임(대표 신종철장로)은 9월 25일 오후 7시 30분부터 월드비전 3층 대회의실에서 일본교회의 목사님과 신도 대표가 11명을 초청해 연합하여 기도모임을 가졌다. 기도회에는 일본에서 오신 일행들 비롯해 기독교축구연합회 회원, 홀리클럽 회원, 성시신문운영위원 등 40여명이 참석해 한·일 합동으로 중보기도를 드렸다.

신종철 장로의 인도로 축구연합회 부회장 김영관 장로(신성강리교회)의 대표기도에 이어 우두강리교회 성도의 피아노반주에 맞춰 축구연합회들이 특별찬양했다. 이날 예배 설교는 '한일교회 회의 방안'(요21:6)이란 주제로 미야모토시지 목사(일본천주교인사)가 전했다. '일본교회는 성시화 되어야 한다'며 인도에는 100% 기독교 인구가 있다. 필리핀의 한 성도 기독교로 되었다. 전도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반군 게릴라가 목사가 되었으며 아들이 도둑질 하다 경찰에 붙잡혀 예수 믿게 되어 그와 가족들 모두가 세례받았다. 범죄가 사라진 복음의 도시 성시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북한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하나님이 없어 복음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처음에 자기 마음대로 그들을 던졌기에 밤이 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건져올리지 못했다. 그러나 없는 세상은 인간중심이다. 예수님 말씀을 믿고 오만론에 던졌더니 그들이 젖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다. 신앙은 듣는대로 부터이다. 한일 도시 성시와 운동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라. 은혜로만 설교말씀 후, 기도모임 총무 김용일 장로의 인도로 한국과 일본교회 대표자들의 합심기도 시간을 끝으로 예배를 마쳤다.

종교개혁 기념예배 및 성시세미나 개최

[일 시] 10월 26일(주일) 오전 11시 / 오후 2시
[장 소] 오진 11시 불사랑장로교회(장재호 담임목사)
오후 2시 광명교회(박인근 담임목사)
[강 사] 김기철 집사
[진 행] 이영길 집사
[주 관] CCF(충천교회포럼)
[후 원] 충천성시화운동본부, 국제제수가족

CCF(충천교회포럼)은 10월 26일 종교개혁주일을 맞이해 16세기 종교개혁자 칼빈의 삶과 제네바종교개혁을 기념하기 위해 칼빈의 종교개혁 연구에 있어 세계적인 권위자인 리차드 캠프 교수(미국)를 초청, 헌원을 방문한다. CCF가 주관하고 충천성시화운동본부와 국제제수가족의 후원하는 이번 행사일정으로 캠프교수는 10월 26일 오전 11시 순복음천주교회/김주환 담임목사에서 종교개혁 기념 주일예배를 인도하고 오후 2시에는 광명교회(박인근 담임목사)에서 연합예배를 드린다. 예배 후 '칼빈의 제네바종교개혁과 헌정 성시화'라는 주제로 열릴 성시세미나는 캠프교수가 주제발표하고 CCF(충천교회포럼) 목사, 충천성시화운동본부, 홀리클럽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세미나는 이영길 집사의 진행으로, 김재성 교수(합동신학대학원)의 조지신학가 캠프교수의 통역을 맡아 수고한다. 캠프교수는 미국 예스틴트 대학교 피츠버그 신학대학원을 졸업, 스위스 바젤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칼빈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예스틴트 신학대학원, 칼빈신학대학원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미국의 개혁신학대학원(Redford Theological seminary) 조직신학 교수로 활동 중이다.

제4회 대구·경북 성시화 연합예배

— 대구·경북을 기록한 도시로(사11:6-97)



강사 이종유 목사
(서울한신교회)

대구·경북 성시화운동본부(본부장 조동제 목사)는 오는 10월 21일(화) 오후 6시 30분 대구실내체육관에서 대구·경북 성시화운동본부와 대구·경북 총회를 주관하고 대구기독교총연합회, 국민일보, 기독교대구방송이 후원하는 제4회 대구·경북 성시화 연합예배를 개최한다. "대구·경북을 기록한 도시로(사11:6-9)"란 주제아래 예배는 순복음대구교회 찬양단의 찬양으로 시작해 초청 강사 이종유 목사(서울한신교회 담임)가 메시지를 전한다. 지난 9월 28일부터 오는 11월 10일까지를 "성시화 주간"으로 정하고 교회연합 및 단체, 분야별로 성시화를 위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성시화 주간동안 대구·경북 지역의 목회자들과 성도, 시민을 비롯해 타지역 성시본부와 클러스터의 일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대구·경북 그리스도인들은 한국의 예루살렘이라 칭송받았던 명성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며 초파교의 평신도들

이 수평적 협력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거룩한 도시, 성시화되기 위해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일어나 연합하여 기도하고 있다.

※ 성시화주간 일제 3사망의 헌혈운동(노년교회 외 9개교회) △성시화 가족 동반기도회(주안산 수양관) △청소소년찬양축제(올네이션스 경배와찬양 관전지) △의료세미나(동일교회복음센터) △성시화연합예배 △무로법률상담(김정현 변호사 외 9인) △성시미술전(대구경북기독교미술인회) △성시찬양의 밤(기독교음악인회, 각교회성가대) △기독교문화세미나(동일교회복음센터) △의료자세미나(동일교회복음센터) △성시주일지킴이 △환경운동과 거리의기도 △대회장 조동제 목사 / 사무총장 박태동 목사 / 준비위원장 이종근 목사

안내전화 ☎(053)746-0691
FAX. (053)743-6059

2003년도 "동부연회 원로장로 위로회"

장로회 동부연회연합회(회장 박영식 장로)는 지난 10월 1일 주문전교회에서 원로장로 위로회를 개최하였다. 동부연회 원로사 감도의 '할일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란 주제의 개회 설교와 가나안 농군학교 김법일 장로가 '성경의 본이 되고 존경받는 원로장로가 되자'라는 특강이 이 있는 후 원로장로 협의회가 열렸다.

금강산 연합교회 설립 준비

조국 통일 기도동지협의회는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금강산 온정자문회관에서 조국 평화통일 기원 금강산 기도회를 가졌다. 한국에서 유로관광을 통해 북한을 찾은 7백여명의 기독교인들이 참여한 기도회에서 피종진 목사(평화통일기도동지회 대표 총재)가 주강사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 자리에서 현대 아산 호텔사업본부장 최인식 장로가 금강산연합교회 설립을 제안했으며

다. 원로장로들을 위한 동례찬 특별 별미를 대접하고 기념품 전달, 예수바우나와 바닷가 명상의 시간 등 1박2일의 위로회를 마치고 지방회장 중심으로 관광평생 소안내와 집대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마련하였다. 평생을 몸바쳐 주의 계단을 섬기고 봉사 헌신한 원로 장로 223명중 170명이 참석하였다.

순회 헌신예배 드린 흥천군 신우회

흥천군 신우회(회장 이상준장로)는 지난 9월 25일 오후 7시 북방면 화계장로교회 성전에서 흥열철 흥우의 사회로 시작해 김용기 부회장의 대표기도에 이어 "화평케 하는 자"란 주제로 화계교회에서 시무하는 채규형 목사가 귀한 메시지를 전했다.

장복음화를 위해 기도드렸으며 채규형 목사의 축도로 헌신예배를 마쳤다. 이날 이상준 회장이 대표로 모범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고 흥천교육청, 흥천신우회 회원들이 함께 모여 흥천지역의 적정신교회 결성을 위한 협의를 갖고 3/4분기 친교행사 등 당사자 힘을 합쳐하였다.

춘천중앙교회 초대 장로 임직예배

— 장로·안수집사·권사 취임 성장한 교회 —

춘천중앙장로교회(사공경 담임목사)는 10월 3일(금) 오전 11시 본 교회당에서 초대장로 장립예배를 드렸으며 이날 안수집사와 권사를 세웠다. 사공경 담임목사 집례로 장로 2인, 안수집사 5인을 안수하였으며 권사 1인의 취임식을 가졌다.



김순제 목사(전 노회장)의 지도를 시작으로 김종호 목사(춘천시찰장)의 성경봉독, 성가대의 특별찬양 시간 후, 노회장 장진준 목사의 "신한 청지기" (벧전4:7-11)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이 있었다. 노회 목사들로 구성된 안수위원의 안수 이후, 장로가온 착용에 이어 김제목사는 장로직을 선포했다. 중앙장로교회는 춘천을 마음속으로 사역하는 교회로써 지역사회를 바르게 하려는 성시화에 앞장선 교회이며 초대 장로 임직을 통하여 하나



남의 뜻을 깊이 통찰하는 교회로 한걸음 더 나아가 성장하고 있다. 임직자 ▲장로 허대영, 이상근 ▲안수집사 최병문, 김병조, 이재근, 김일경, 박봉수 ▲권사 정영란

감리회 제25회 입법총회 10월 28일 개최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목회장 김진호 목사)는 제25회 총회 정기입법회의 소집 공고를 하였다. 오는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서울 광림교회에서 총대 800명이 모여 감리교의 "교회와 가정"을 개정하고 순거법과 목사고시와 수급계획등 감리교정책을 뒷받침할 법을 수정 보완 하겠다. 감리회 10개 연회에서 선출된 장정 개정위원 24명은(동부연회 김장수 목

사, 김기태 장로)는 14차에 걸쳐 감리교 헌법을 검토하고 토의하여 입법예고 하였던 바 이번 감리교단의 주요 정책은 감목, 감목회장 선거를 제비뽑기로 하는 것과 총대들이 투표하는 두 법안이며, 현행 총대 3천명을 줄이는 안과 감목 선거인단을 확대하기 위하여 총대를 늘이는 안과 재판관 및 준법관을 헌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다.

기독교타임즈 동부연회 지사 개설



지사 김기태 장로
(춘천중앙장로교회)

지난 9월 17일자로 기독교타임즈 동부연회 지사장으로 김기태 장로(중앙감리교회)가 임명받았다. 본 신문은 감리교단의 유일한 주간신문으로 교회, 지방, 연회소식을 전달하고 신앙간증을 듣는 홍보매체로서 2000년 5월 창간 이래 많은 성도들이 애독하고 있으며 크게 성장

하고 있다. 김지사장은 춘천중앙감리교회 시무장로이며 전 강원도교육청 삼척정보도서관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춘천성시신문 상임지도위원과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실행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그는 인생의 황혼기를 '기독교 타임즈'와 함께 하려 한다며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 구독신청 및 교회행사, 광고계 등 의뢰는 김기태 장로 ☎ 254-7367 H.P.011-9901-3511 / 주소: 춘천시 옥촌동 6-7번지

감리교춘천 동서남북지방 장로연합 체육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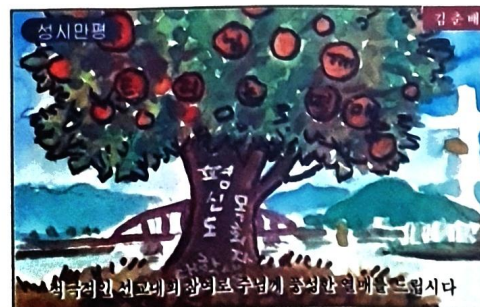
감리교 춘천남지방 장로회 주관으로 동·서·남·북지방 장로들이 연합하여 오는 10월 25일 토요일 오전 10시 은의동 배나무골 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춘천의 4개 지방 215명의 장로

들이 참여할 예정인 이번 체육대회는 배구, 축구, 피구, 줄다리기 총 4개 종목으로 선의 경쟁을 통해 화합하고 친교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흥천 만민교회 체육대회·경로잔치 성료

흥천군 흥천읍 연봉리에 위치한 만민감리교회(양명환 담임목사)에서는 10월 5일 주일 화랑유성사에서 야외예배 및 전교인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200여명의 성도들이 함께 자리하여 플라후프 돌리기, 투호, 족구, 게임미 축구 등 다양한 경연이 12개 종목의 경기에 참여하며 친교의 시간을 보냈다. 폐회 예배 후에는 기념품 증정과 자전거 4대, 선동기 외 1백여점의 경품추첨으로 체육대회의 재미를 더한 다채로운 행사를

가졌다. 또한 10월 11일 토요일에는 흥천읍내에 거주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6백여명을 만민교회로 초청해 경로잔치를 베풀었다. 참석자 전원에게 기념품을 증정하고 회향자 모두에 영전사진 촬영 제작 증정과 무료 이·미용 봉사를 실시해 서비스했으며 경로당 차량운행을 통해 무사히 귀가할 수 있도록 교통편리를 제공한 등 어르신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직접 실천하는 만민교회 성도들이었다.



성시화민명 김순제

금강산 연합교회 설립, 남·북 세계챔피언준비 이금중·김진경 집사 LIVE 찬양콘서트



복음가수/이금중 집사

- 특별설기 작사, 작곡
- 방송찬양 프로MC
- 찬양감독 및 세미나 강사
- 국민일보부설 찬양사역자회 총무회장



에벤에셀음악인원
여의도순복음교회



복음가수/김진경 집사

- '98한국전남시목회 대담수상
- 국영방송, 기독교방송 출연
- 전 크리스찬 TV 찬양프로 MC
- 전, 한국교회 찬양사역연구회 회장
- 기독교방송 '저녁가사소리' 출연
- 미주교회회 사모로서 13회 개회

일시: 2003년 10월 30일(목) 오후 6시 장소: 호반실내체육관

주최: 주코이신협 주관: 한국전도신교포로선 후원: CBS춘천방송, 국민일보,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춘천성시신문
협찬: 제이유네트웍스(주) 춘천센터 춘천베어스관광호텔, 강원인상종합, 유원종합건설(주), (주)J&M, 대구아구팀, 중앙화학, 영강한의원, K.T.F세제(대리점), (재)수정장학회, (주)형제K종합건축사사무소, 흥명자동차공업(주), 동부주유소, 역사박물관

'대한민국' 대표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 제이유네트웍스